

‘삼각 과학벨트’ 영·호남 ‘공동 전선’

민주·한, 예산 10조 확보 서명운동 돌입...정치권 공조 장담 못해

영·호남 정치권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를 광주·대구·대덕 등 3개 지역에 분산배치하는 ‘3각 벨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공동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영·호남 정치권은 이와 함께 과학벨트에 투입될 국고 예산을 예초 예정된 3조5000억원대에서 10조원대로 늘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을)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상기 의원(대구 북구 을)과 과학벨트의 분산배치(3각 벨트)를 위해 호남과 영남지역 정치권이 공동 전선을 펴기로 하고 우선 지역 국회의원

들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늦어도 이달 말까지 광주·전남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과학벨트 분산 배치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며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서상기 의원이 책임지고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남에서도 박지원 원내대표가 과학벨트 분산 배치와 관련,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듯이 대구·경북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경북에 이어 부산·경남 국회의원들의 지지 서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명 내용과 관련, “과학벨트를 광주·대구·대덕 등 3개 지역에 분산배치하고 예산도 당초 3조5000억원에서 10조원대로 증액하자는 것이 주요 사항이 될 것”이라며 “10조원대의 예산을 확보한다면 각 지역에 3조 5000억원대의 국고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충청권의 반발도 누그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영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과학벨트의 분산 배치에 적극적인 공조를 이룰 경우, 정부의 최종 입지 선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호남 국회의원 숫자가 99명(영남 68, 호남 31)으로, 전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벨트의 분산 배치와 관

련, 영호남의 공조가 공고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호남에서는 전북 국회의원들이, 영남에서는 부산·경남 국회의원들이 지지 서명에 나서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영남권에서 절대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찬성하고 있다. 여기에 과학벨트 예산을 당초의 3배 수준인 10조원대로 증액하는 것도 현실화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영·호남의 공조가 가시화된다면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입지 선정에는 정치·사회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최종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이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 설명회’를 열고 과학벨트 분산배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과학벨트’ 호남유치 설명회 성공적

姜시장 분산배치 당위성 강조...참석자 공감대 형성 일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호남 유치를 위한 과학계 인사 초청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14일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12층에서 과학기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수와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과학벨트는 국가의 백년대계와 시대적 양상에 따라 호남에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당위성으로 ▲광주의 첨단산업단지는 Science to Business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화)를 실현 시킬 최적지이며 ▲일본의 대지진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반 안정성에 서 호남이 가장 견고하며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도 호남에 과학벨트가 유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시장은 특히, “과학벨트의 선

진 모델인 일본과 독일의 경우 연구 시설이 모두 분산돼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각 지역 연구기관 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며 과학벨트 분산배치(삼각벨트)의 당위성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저렴한 땅값 ▲충분한 부지 확보 ▲문화수도 및 예향의 감성을 더해 호남이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광주시에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지역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히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광주에 중이온 가속기와 과학벨트 본원이 유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과학벨트의 광주 유치를 위한 설명을 듣고 보니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으며, 학회 관계자도 “과학벨트의 분산 배치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서울 광화문에서 과학 기자 초청 간담회를 열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방안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또 오는 16일 광주·전남지역 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21일과 30일에는 각각 경제계와 과학계 주관으로 과학벨트 호남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시의 이 같은 행보는 국제과학벨트 특별법에 의해 다음달 초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내외의 과학벨트위원회가 구성돼 입지선정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앞으로 2~3주가 유치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누이 좋고 매부 좋은’ F1 마케팅

조직위, 英JCB사와 업무협약·티켓론칭소 간소화

F1(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일석이조’의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대회 운영 과정에서 ‘마른수건 쥐어짜기’식 비용절감을 추진하면서도, 개최 분위기 고조 및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찾는데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F1대회조직위원회는 14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세계적인 건설 중장비 생산업체인 영국 JCB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F1대회를 통해 브랜드 자산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글로벌 기업 홍보 전략과 대회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비절감에 나서야 하는 조직위 구상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뤄졌다.

JCB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회 기간 중 1250kg를 들어 올릴 수 있는 18대의 대형 크레인을 무료로 제공한다. 조직위측은 크레인 운전 요원 숙박비·보험료·인건비 등 4000만원을 부담한다. 지난해 F1대회 때 동원된 크레인 관련 비용이 임대료·물류비·보험료 등 1억9000만원에 달했던 만큼 1억5000만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신, JCB는 전 세계에 생중계되

는 F1 대회를 통한 광고 효과를 노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 촉진으로도 이어지는 마케팅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JCB는 1945년 설립돼 영국에 본사를 둔 건설·폭파·농업 장비 제조하는 업체로, 말레이시아 F1대회에도 크레인을 무상 지원하는 등 자동차 경주대회에 관심을 두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F1조직위는 앞서 13억원이 넘게 들었던 지난해 티켓 발매 행사를 올해 2억4000만원 수준으로 줄였다. ‘군살’을 빼면서도 1주일만에 6여억 원 어치의 티켓을 팔아치우는 등 충분한 홍보 효과를 내는 거뜬다는 평가다.

/김지용기자 dok2000@

광주 빛고을노인타운 전문병원 착공



광주시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 노인전문병원과 고령친화체험관 착공식이 14일 남구 노대동 사업현장에서 열렸다.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제공)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 노인전문병원과 고령친화체험관 착공식이 14일 남구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노대동 사업 현장에서 열렸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조성사업은 1~3단계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1단계 사업으로 복지관과 문화관, 체육관, 후생관 등이 지난 2009년 완공됐으며 2단계 사업으로는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등이 지난해 4월 개장해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3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광주시 전곡에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들어 건축면적 5726㎡, 지상 2층 규모로 건설되며 오는 12월 준공된다. 3단계 사업이었던 퇴행성질환전문병원은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광주김치축제 10월 15~19일 개최

올해 광주 세계김치문화축제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는 지난해(10월 23일~10월 27일)보다 일주일 앞당겨진 것으로, 축제 주제는 ‘천년의 맛, 세계인과 함께!’로 정해졌다.

세계김치문화축제위원회는 14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제1차 총회를 갖고 김치축제기간을 앞당겨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내외 광주 김치 마케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전·사후행사도

함께 갖기로 결정했다. 사전행사는 9월 서울에서, 사후행사는 12월 광주 김치타운 일원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 행사는 축제 30일 전 수도권 국내 유명 백화점과 연계한 ‘감칠배기’ 홍보와 관측을 위한 특관행사 및 국제김치컨퍼런스 개최, 사후행사는 ‘김치명인과 함께 담그는 겨울김장’ 등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古家 고향의 맛

고가약소리탕

진정한 깊은 맛이 있습니다!!
엄선된 약재와 까다로운 재료 선별로 최고의 맛과 건강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정성이 있습니다!!
한분 한분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며 모든 조리과정에 정결함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완비

점/심/특/선	약소리탕
오리탕 5,000원	1마리 36,000원
11:30~1시 까지	반마리 18,000원
	1인분 9,000원

예약문의 062)226-8254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 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